2026-02-22-icsc core message
말씀제목: Nowhere, Nothing, Nobody
말씀구절: 창1:1

들어가는 말씀
오늘 Nowhere, Nothing,Nobody중에서 Nodthing에 집중할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창1:1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해봐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태어났다. 이 상태가 아기 자체에서 뭘 느낄것인가? 생각해보라. Nothing, Nowhere, Nobody이다.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가질것이다. 아예 진짜 네추럴에서 태어난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늘에와 다 만들었다. 우리들의 부부가 결혼하고 애가 나오는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인가? 또 하나님은 알파되시고 오메가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 여정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할라고 하시려는가? 저도 잘 모르고 교회다니고 크리스챤이 되었다. 이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237- 5000종복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땅에 사는 이유라는것을 조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노 컨디션이다. 우리는 뭐 할때는 컨디션이 필요하다.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와진다고 믿음생활 하고 있다.

진짜 내가 낫띵, 이곳에서 시작했나? 내가 내 자체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것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을것이다.

이번에는 칠판에 안쓸것이고 영어로 할것입니다.

하나님, 아무조건이 없다. ,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다. 하나하나가 완벽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와 땅 모든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작하셨다.

에너하임에 마리벨 집사님 집에 다락방을 갔는데 5-6명이 오더라. 이들이 오기 시작한지 4년정도 되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 그런데 오늘 한사람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인생속에서 제일 축복을 받은게 뭐냐고 던졌다. 한 여자분은 참 감사하다. 이사람들은 크리스챤이었다. 그러는데 이 복음을 듣고 마리벨 집사님한테 내 인생시간을 많이 바꾸었다고, 변화되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치유한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이고 치유이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마쯔다 목사가 왜 안오냐고 우리를 버리고 가셨나고 한다. 내가 3교구 맡아서 사역하고 있으니 가끔 올것인데 버리는것 절대 없을것이다고 했다. 어떻게 다민족을 버리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가 한사람에게서 하고있다. 미리 하고 있었다. 여기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다. 그러는 속에서 3교구에서 요새 수요일예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용호장로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절대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게 없더라. 제가 놀랐다. 항상 겸손해, 장로님이가... 준비해주시고 있을수 있도록 해준다. 내가 못하니까 이 사람 많이 느끼고 있다. 또 있다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는것을 제일 좋아한다 왜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물을 세우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것이다.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도 생각있고 경험있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는 사역을 하고있으면 전달이 되겠는가? 아니다. 장목사님이 가서 2부메시지 준비하라고 아무 말씀을 안하셨다. 이은철 목사님이 바빠서 토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다. 그런데 나는 이 타이틀을 노웨어, 낫띵, 노바디를 가지고있었다. 지난주 핵심예배 노웨이 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시라는 것이라는것을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1:1절을 찾았다. 그러니까진짜 오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것이다. 그러는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해보지 못한것이 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해 못했습니다. 할수 있도록 현장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다. 저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그러냐면 항상 하나님께 답이 있기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들으면 1시간 정도 듣는다. 고민을 많이 할것이다. 전도 나가면, 여기다.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졌다. 예수그리스도 다 안다. 그렇다.

이 현장에 가면 우리들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목요일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다. 마쯔다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만났다. 크리스챤인데 순진한 여자분이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되는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여자분이가 마쯔다 내 이름이다. 여자분인데 뭐 일하고 있냐고 물어보도 대답을 하더라. 못 알아듣는다. 마쯔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런데 저는 마쯔다 선교사 목사이다. 오 선교사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 완전한것이다. 알페와 오메가이다 더 이상 없다. 여기에 인정하고 성경말씀, 담임말씀속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는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고 있으니까 이자리에 오는것 아닌가?

진짜다. 우리 믿음속에서 뭣을 해야 하는가? 제가 두달전에 구역예배에도 스페니쉬 교구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고린도전서13장13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시하고 알게 되는가? 읽어보시라.
보시라 믿음이다. 저도 다락방 알게 되고 이은철목사와 비슷하게 30년되간다. 이 믿음속에서 맞다 여기야 잡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문제해결자이다. 이것 잡았다. 한국에서 7년동안 훈련도 가서 받았다 내 자랑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목회, 기도생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 죽겠는것이다.

왜? 믿음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소망이 나오는데 소망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것이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가? 진짜 내가 기쁜가? 그렇다. 이거 치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이 치유가 안되면 아무리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쳐도 우리가 안통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다. 이 세가지 안에서 더 근본은 뭔가? 사랑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이 붙잡고 목사가 선교사가 말하는데 여러분은 뭘 느껴야 하는가? 언약이다. 언약이 뭐고 말씀은 뭔가? 사랑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씀이 속에서 믿음주시고 소망주셔서 사랑마음이 말씀이 속에서 풀어지는것이다.

그래야 성도들이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더 이야기해 더 근본은 몰라 뭐이야기 했는지 사랑이라고 이야기 했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 큰것은 사랑이고 했다. 말씀이 안에서 이 세가지가 나온다. 메시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경험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가 되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살수 있어. 소망이나온다. 그럴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말씀전하는 선교사나 목사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느낌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중요하다. 이 느낌이 경험이 나에게 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이가 이 입에서 나왔다는 내가 경험이야
힘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낫띵이고 노바디이다.
이리 뒹굴고 저리뒹굴고 끝. 그런데 뭐가 있는가 엄마가 있고 우유가 있어 얘는 몰라, 엄마가 우유먹이는것이다 요게벳 모세엄마는 달랐다. 우유주는데 복음의 우유주었다. 나도 우리 신지, 은지 우유주었다 키웠다.
복음을 이야기 했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성경에는 없다. 이 컨텐츠는 뭔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피지컬 사랑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요게벳이 주는 아카페 우유를 주는것이다.

욥이 말한다 나는 나올때 아무것도 안가지고 왔어. 죽어서도 아무것도 안가지고 정직한것이고 사실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진짜 우리는 가지고 있는것 많아 하나 하나회개 하고 버리는것 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는길 전도와 선교와 복음속에서 돌아가는 이 시대가 왔다. 낫띵. 최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도 안다.

우리가 근본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자체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올바른 뭔가 사역을 하는것 말씀을 주는것 인가? 함께 있는것이다. 하나님이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시라. 자기가 해야 하는거 개인 개인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민족 스페니쉬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것이 복음운동이다.

모든것이 스케줄이 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 우리 교회에도 있다.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갈 수 있는것인가?

우리 깊이 개인개인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길 해야 되는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속에서 하면된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도 그렇다.

이 나라는 것 통해서 나라는 수식어 시간속에서 하나님이 어덯게 하실지 알아야한다.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아무것이나 생각안하고 하나님이 주실것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안그런가? 이것이 있으니까 시간표가 있지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있으면 끝나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이다.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교회속에서 우리가 서밋타임을 가지고 갈수 있는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목사 중직자 렘넌트 다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것인가? 아멘@